

《최수양: Unfold》



〈손〉

2021

오일, 폴리우레탄페인트, 에폭시 레진, 우레탄
레진, PVC, 스테인레스 스틸, 황동 파이프,

호두나무, 왁스

53x80x22cm

전시제목 : 《최수양: Unfold》

전시기간 : 2021년 7월 28일(수) – 2021년 8월 29일(일)

전시장소 : 학고재 본관

출 품 작 : 조각, 설치 및 회화 21점

문 의 : 02-720-1524~6

담 당

우정우 [wcu@hakgojae.com](mailto:wcw@hakgojae.com)

우주연 jywoo@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10728-20210829_최수양, Unfold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1년 7월 28일(수)부터 8월 29일(일)까지 최수양(b. 1975) 개인전 《Unfold》를 연다. 학고재에서 선보이는 작가의 첫 개인전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되어 일상에 대해 재고할 기회가 많아진 요즘, 일상과 같던 작업 습관과 거리를 두어 변화를 시도한 중견 작가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2000년대 초반부터 쉬지 않고 작업 활동을 지속해온 최수양은 2019년 봉산문화회관(대구)에서의 개인전 《몸을 벗은 사물들》 이후로 2년간의 공백 기간을 가졌다. 그간의 내적 여정을 학고재 본관에 21점의 작품으로 풀어놓는다

최수양은 변형되거나 해체된 인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입체 작업을 주로 해왔다. 온전한 개인의 삶과 견고한 집단의 규범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서사들을 이러한 형상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양상의 작품을 평면,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 지식과 실재 사이의 틈에 대해 얘기한다. 재현의 껍질을 걷어내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관통할 전시다. 맹지영 독립큐레이터가 이번 전시의 서문을 썼다.

2. 전시 주제

조각적 습관에서 벗어나 아직 만들지 않은 형상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기

2018년 여름, 최수양은 외과 수술을 받았다. 오랫동안 작업에 임했던 양손에 과부하가 걸린 탓이다. 수술 후 재활 기간을 통해 최수양은 그의 기존 작업 방식을 재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기적인 물질들을 견디며 소진한 시간 동안 나의 몸에 배인 조각 행위의 습관은 제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몸에 남겨진 익숙함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재현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주체를 지워내는 일이다. 견고한 표피로서 닫힌 것을 열고, 새로운 사유가 개입할 여지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 《Unfold》에서 “조각가는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드러내어 그곳의 안내자가 된다.”¹ ‘방식’이라는 새로운 피부가 자라지 않은 발을 관객과 함께 내딛는다.

지식과 실재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이성적 서사

최수양은 자신의 조각적 습관들이 “몸의 지식”으로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는 ‘에코르셰(Écorché)’에 주목했다. 에코르셰는 피부가 없는 상태로 근육이 노출되어 있는 인체나 동물의 그림이나 모형을 말한다. 16세기부터 미술가들의 작업실에 구비되어, 미술 해부학 교육에 사용했다. 조소를 전공한 최수양이 기초로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역사가 오래된 만큼, 모든 에코르셰의 정보가 사실은 아니었다. 지식의 기초가 되었던 것들이 허구로서 실재했다. 그리고 이 에코르셰는 최수양에게 더 나은 재현을 위한 것이 아닌, ‘빈틈’을 지닌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풀어온 “감정의 서사”와 거리를 둔 그의 어조는 자못 이성적이다. 공감을 부르기보다는 그가 시작한 퍼즐의 조각 맞추에 동참하기를 제안하는 듯하다. 조립하면 완성될 것 같은 전개도는 온전하지 않은 도형을 가리킨다. 우리 몸의 구조를 나타낸 것만 같은 인체 표본은 허구다.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색은 구분을 위함일 뿐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 그가 제시한 단서들이 이끄는 곳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지식과 실재의 틈을 넘나드는 서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¹ 최수양 작가노트.

3. 작품 소개

- "명조제 인용구"는 맹지영(독립큐레이터, WESS 공동운영자)의 전시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언폴디드 1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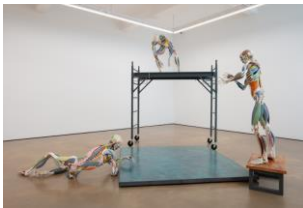
2021

기름을 먹인 종이에 유채,
스테인레스 스틸, 무반사 유리

115(h)x88x30cm

“종이에 오일을 먹여서 두께를 만들고 그 위에 마치 도형의 전개도처럼 그려진 〈언폴디드〉 (2021) 연작은 평면이지만 앞뒤 구분이 없어 제3의 입체를 상상하게 만든다. 종이에 오일을 바르고 말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투명도는 종이가 가진 질감과 구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시간과 발린 정도에 따라 다른 두께를 형성하게 된다.”

면이 남거나 모자란 가상의 전개도는 실재할 수 없는 도형을 지시하지만, 상상 속에서 더 많은 면을 지닌 열린 구조체가 된다. 최수양은 〈언폴디드〉 연작을 통해 온전한 구조를 깨고, 잉여와 결핍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을 암시한다.



〈조각가들〉

2021

오일, 아크릴릭, 폴리 우레탄 페인트,
에폭시 레진, 폴리 우레탄 레진, PVC,
스테인레스 스틸, 강철, 합판

가변설치

〈조각가들〉은 에코르세를 참조하여 작업 중인 조각가들의 모습을 구성한 것이다. 마치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업물은 보이지 않는다. 빈 작업대의 표면엔 작업과정을 암시하듯 여러 겹의 흔적이 시간적 깊이를 보인다. 조각으로 제시된 조각가들의 몸은 실제 인체 표본처럼 구현되어 있지만 실제 인체와는 다른 허구적 형태다. 가리키는 지점을 상실한 표본은 형과 색으로 조합된 상(像)으로 남는다.



〈프래그먼츠 1〉

2021

아르쉬지(紙)에 수채
38x55.5cm

〈프래그먼츠〉연작은 〈조각가들〉에서 볼 수 있는 색깔을 지닌 인체 구성 요소를 작가가 임의로 선정하여 평면에 투사 및 조합한 수채화다. 조형물의 구성요소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새로운 서사를 구성한다.

“이 드로잉은 제목이 암시하듯 개별 형태들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단순히 물과 물감이 만난 흔적임을 스스로없이 얘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의 특정한 형태로 보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양과 색이 이끄는 대로 개별적인 개체 자체로써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다.”

4. 작가 소개

최수양은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 안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현상을 사실적인 인체의 형상을 통해 풀어낸 작업을 해왔다. 그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과 함께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기혜경,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는 평을 받은 바 있다. 2004년 스페이스 셸(서울)을 시작으로 꾸준히 개인전을 가져왔으며 근래에는 안셈부르크 미술관(리에주, 벨기에), 두산갤러리 뉴욕(뉴욕), 봉산문화회관(대구)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서울시립미술관(서울), 소마미술관(서울), 제10회 광주비엔날레(광주), 베스트포센 미술관(베스트포센, 노르웨이)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성곡미술관에서 '2010 내일의 작가'로 선정되었고, 2014년에는 김세중청년조각상을 수상했다. 국립현대미술관(과천), 서울시립미술관(서울), 성곡미술관(서울), 메종 파티퀼리에르 아트센터(브뤼셀) 등 주요 미술 기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체 시 글쓰이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학고재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도가 만드는 모양

맹지영 | 독립큐레이터, WESS 공동운영자

작가 최수양은 조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심리 상태가 투영된 인체 조각을 해왔다. 사실적으로 인간의 신체를 보여주면서도 부분을 과장하거나 생략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태를 무너뜨리면서 추상적인 이미지가 한 작품에서 공존하도록 만들었다. 그가 만든 신체들은 때로는 대면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연약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한 단면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타인과 사회에 대한 작가의 응축된 감정으로 점철된 최수양의 조각은 관객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이리저리 부딪히며 강렬하게 전달되었다. 실제 몸과 너무나 닮아 있으면서도 낯선 조합으로 쉽게 지워질 수 없는 인상을 가진 작업들은 꽤 오랜 시간 작가도, 그리고 작업을 바라보는 관객도 놓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서로에게 각인된 몸은 작가의 의도대로 관객과 만났고 그것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있음을 확인하곤 했다. 나 역시도 몸이 품고 있는 징후들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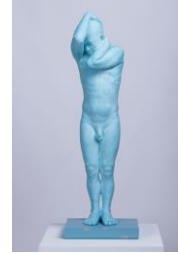


도 1. <무제>, 2018. 석고, 안료, 강철, 49x18x2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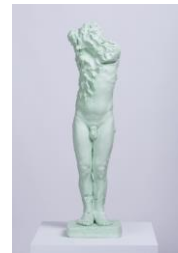
해 작가와 그리고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와 만나곤 했다.

그런데 너무도 분명했던 형태와 인상이, 집요하게 무언가를 꼭꼭 담아 만들어왔던 꼭 차 있던 몸들이 언제부터인가 그를 움아매기 시작한 것일까? 어느 순간 몸의 형태는 부분에서부터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했다. 2018년의 <무제>연작에서 인물 두상의 하관 부분만 남기고 형태가 뭉개져 있거나(도1), <자화상>(도2), <무제_캐스팅의 흔적>(도3), <무제_링 아웃>(도4)에서는 마치 온전한 자신의 몸을 머리와 팔부터 뭉개며 지우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온전한' 형태로부터 벗어나려는 작가의 몸부림이었던 것 같기도 했다.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절박한 징후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제_스트레치 오버>(2018)(도5)에서의 몸은 다리의 일부만 남기고 전부 짓이겨져 언 듯 봐서는 신체임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어쩌면 작가가 20여 년 조각가로서 보내온 시간 동안 집요한 손의 움직임으로 탄생한 몸들이 역설적이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벗어날 수 없는 막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작가는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몇 걸음 앞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자신의 손을 향해 멈추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짓이겨 없애도 몸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그에게 남겨진 것은 지칠 대로 지쳐 탈진한 두 손이었다. 항상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물질을 만지고 힘을 가하던 그의 손은 그제서야 잠시 멈출 수 있었다. 가속도가 붙은 손의 열을 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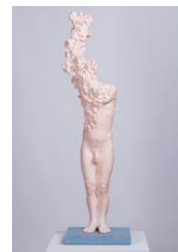
최수양은 관성에 이끌려 움직이던 지친 손을 쉬게 하며 그 부지런했던 움직임을 가능케 했던 자신의 몸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외부에 대상을 향해 조율되어 거침없이 움직여왔던 팔과 손의 근육들은 작은 동작에도 큰 신호를 보냈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행위들에 대한 내부의 협조는 더디기만 했다. 이제 그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대상은 사라졌다. 그는 습관처럼 해왔던 행위들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각가라면 진리처럼 여겨왔던 미술해부학을 다시 살펴보며 실제와는 다른 인체 근육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면서 잘 맞춰진 듯 보이는 근육의 자리들을 조금씩 비틀어 틈을 만들기 시작했다. 무엇을 어긋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의 위치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조각가들>(2021)이 나오게 된다. 이 작품은 작업이 놓여있지 않고 여러 겹 그 과정의 흔적만 남은 빈 작업대를 둘러싸고 있는 인체해부학 모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형들은 구분을 위해 다양한 색으로 칠해진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고 '조각가들'로서 무언가를 만드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대상은 보이지 않지만, 대상을 만들었던 축적된 시간만을 암시하는 작업대는 그의 반복적인 습관이 만들어내는 흔



도 2. <자화상>, 2018, 석고, 안료, 93x24.5x25.5cm



도 3. <무제_캐스팅의 흔적>, 2018, 석고, 안료, 117.5x30x20cm



도 4. <무제_링 아웃>, 2018, 석고, 안료, 117.5x30x20cm



도 5. <무제_스트레치 오버>, 2018, 석고, 안료, 105x47x15m

적이자 조각적 태도이기도 했다. 물질을 붙여나가 형상을 만들어 왔던 과거의 작업과정과는 달리 물질을 바르고 갈고 다시 바르며 쌓아가지만, 가시적인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두께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형상 없는 흔적을 만들거나 왜곡된 근육들을 차곡차곡 붙여 나가고 색을 칠하는 단순한 작업 과정을 통해 꼭 조여진 긴장과 빠져나가지 못할 것만 같던 과거 몸에서 서서히 벗어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작가는 몸에 남아 있는 조각적 습성을 통해 고집스럽게도 무의미해 보이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그리고 그 반복된 리듬이 그를 지탱해주면서 어디론가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주었다. <조각가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최수앙을 붙들고 있던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든 전환점인 것이다.

<조각가들>에서 최수앙은 완벽한 전환이나 그로 인한 해방감을 전적으로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조각가의 태도와 조각의 본질에 대해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일련의 작업을 하게 된다. 종이에 오일을 먹여서 두께를 만들고 그 위에 마치 도형의 전개도처럼 그려진 <언폴디드>(2021) 연작은 평면이지만 앞뒤 구분이 없어 제3의 입체를 상상하게 만든다. 종이에 오일을 바르고 말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투명도는 종이가 가진 질감과 구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시간과 발린 정도에 따라 다른 두께를 형성하게 된다. 무의미해 보이는 작가의 반복적인 과정은 종이어이 이전에 물질임을 더 부각시킨다. 그리고 그 위에 그려진 선과 면, 면을 칠한 색들을 따라 상상의 종이접기를 하다 보면, 색이 발린 면 자체가 환영이 아닌 독립적인 사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작품이 벽면에 걸리는 것이 아닌 앞면과 뒷면을 모두 볼 수 있도록 계획한 작가의 의도에 맞닿아 있다. 또 다른 평면 작업인 <프래그먼츠>(2021) 연작은 <조각가들>에서 뼈대 위에 붙어 있던 여러 색으로 채색된 근육들과 달리 그 형태를 연상케는 하지만 파편처럼 개별 형태들이 중첩되기도 하고 떨어져 있음을 종이에 수채화로 표현한다. 이 드로잉은 제목이 암시하듯 개별 형태들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단순히 물과 물감이 만난 흔적임을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의 특정한 형태로 보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양과 색이 이끄는 대로 개별적인 개체 자체로써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다. 평면이지만 입체적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프래그먼츠> 연작과 더불어 <손>(2021)은 <조각가들>을 넘어 새로운 기류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조각가들>에서와 달리 과감하게 생략되어 단순화된 근육으로 만들어진 이 작업은 단지 반복적 행위의 과정으로서만이 아닌, 조각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의미를 만들고 있었고 아직 진행 중인 최수앙의 미래 조각에 한층 가까이 다가섰다.

작가가 다루는 물질과 형태를 과거 감정의 서사를 위한 통로가 아닌 여전히 익숙한 조각의 방법론 안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수양은 각 작업에서 물질과 그것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형태와 색채,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행위 자체에 주목했다. 그는 어찌 보면 답답하리만큼 고집스럽게 단순하고 반복적 행위의 루틴을 고수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대상에 어떤 의미를 만들고 감정을 부여하기보다는 작업이기 위한 각각의 요소들이 그 자체로써 온전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읽어내려고 하는 관성을 거스르고자 한 것이다. 사실 조각의 과정과 태도는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시선을 돌려 거리를 조절하면서 과거 작품들에서 집요하게 전달하고 투사하고자 했던 감정의 무게를 한층 덜어내었다. 작가는 작업의 긴 여정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불안한 현재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난한 과정의 흔적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 흔적들부터 최수양이 만들어 낼 새로운 모양의 조각을 마음껏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6. 작가 약력

최수양

1975 서울 출생
200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200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조소과 석사 졸업
성남에서 거주 및 안양에서 작업

주요 개인전

2021 언폴드, 학고재, 서울
2019 몸을 벗은 사물들,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7 몸을 벗은 사물들, 두산갤러리 뉴욕, 뉴욕
2016 얼굴, 갤러리 그라디바, 파리
오브젝트, 스페이스 캔 베이징, 베이징
2014 더 블라인드 포 더 블라인드, 갤러리 알베르 베나무, 파리
더 블라인드 포 더 블라인드, 안셈부르크 미술관, 리에주, 벨기에
2013 페이크 플라스틱 트리, 스페이스 캔 및 오래된 집, 서울

- 컨디션 포 오디너리, 아트시즌스갤러리, 싱가포르
- 2011 성곡미술관, 서울
- 2010 아스퍼거의 섬, 두산갤러리, 서울
아스퍼거의 섬, 갤러리 알베르 베나무, 파리
- 2009 휴먼 이모션 언베일드, 갤러리 알베르 베나무, 파리
가려움증, 덕원갤러리, 서울
- 2007 식물적 상태, 갤러리 LM, 서울
- 2004 주광성 주광인(走光性 走狂人), 스페이스 셸, 서울

주요 단체전

- 2021 미술원, 우리와 우리 사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제 3 의 프린트: 뉴 콤비네이션, 트라이보울, 인천; 명주예술마당, 강릉
- 2020 제 3 의 프린트 인 여수: 숨은판화찾기, 갤러리노마드, 여수
- 2019 더 센시스: 과잉과 결핍 사이에서 호흡하다, 토탈미술관, 서울
행복의 시도, MAIF 소셜 클럽, 파리
한국 현대조각의 단면,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서울
조각으로 표상된 몸[신체]의 미학, 모란미술관, 남양주
- 2018 빛나는 순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올림픽 조각 프로젝트-포스트 88, 소마미술관, 서울
별 헤는 날: 나와 당신의 이야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지금, 여기 또다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
크랙트, 피아트 이비자 갤러리, 이비자, 스페인
제3의 프린트, 호모 아키비스트; 작가의 개입, 도잉아트, 서울
- 2017 감각의 논리, 갤러리 시몬, 서울
- 2016 페스티벌284: 영웅본색英雄本色, 문화역서울 284, 서울
제3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억조창생, 창원
돌아와요 부산항에, 베스트포센 미술관, 베스트포센, 노르웨이
확장자.kr, 트라이엄프 갤러리, 모스크바; 불가-비야트카 국립 현대 미술 센터, 모스크바
더 드림 오브 플라잉, 브란츠 미술관, 옌센, 덴마크
- 2015 헤이! 모던 아트 앤 팝 컬처 파트 3, 알 생피에르 미술관, 파리
복종,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베를린
몸, 한독의약박물관, 음성
환영과 환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2014 심볼, 스피릿, 컬처, 에드윈 갤러리, 자카르타

- 제10회 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물질매직, 일우스페이스, 서울
장면의 재구성,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 2013 텔레-비, 갤러리 현대, 서울
더 쇼 머스트 고 온, 프락시스 스페이스, 싱가포르 현대 미술 학회, 싱가포르
후 이즈 엘리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현대미술특별전, 라이트박스, 베니스, 이탈리아
잠시동안, 인간, 문화공장오산, 오산
슬로우 아트, 갤러리 모아, 파주
헤이! 모던 아트 앤 팝 컬처 파트 2, 알 생피에르 미술관, 파리
- 2012 몽유_마술적 현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몸의 사유, 소마미술관, 서울
우리는 행복한 시지프스를 상상해보아야 한다, 하우스 오브 더 노블맨, 런던
플레이그라운드, 아르코미술관, 서울
시대의 초상, 스페이스 캔 베이징, 베이징; 스페이스 캔, 서울
- 2011 시대정신, 인터알리아 아트 컴퍼니, 서울
여성성 0.1, 메종 파티퀴리에르 아트 센터, 브뤼셀
픽션 앤 논픽션, 인터알리아 아트 컴퍼니, 서울
- 2010 코리아 투모로우,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서울
눈먼 자들의 도시,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히어 앤 데어, 루쉰미술학원 갤러리, 선양, 중국
- 2009 대구 텍스타일 아트 도큐멘타: 페브릭 아르케, 대구예술문화회관, 대구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아시아 현대미술 프로젝트 시티넷 아시아 2009,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현대미술의흐름II-극사실회화,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경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아티스트 갤러리 2 초상,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 2008 스컬쳐 스포큰 히어, 덕원갤러리, 서울
코리안 영 아티스트 3, 두산갤러리, 서울
서교육십: 취향의 전쟁, 갤러리 상상마당, 서울
프롬 코리아-퍼스트 스텝, 아트시즌스갤러리, 베이징; 아트시즌스갤러리, 싱가포르
- 2007 빨짓, 대안공간 충청각, 서울
크리티컬 매스, 관훈갤러리, 서울
바니타스: 허무하고 허무하니 이 또한 허무하다., 에스파스 슴, 서울
- 2006 미디어 씬 인 서울_메르츠의 방,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내 안의 소인국, 머쉬룸 갤러리, 뉴욕

상:상(想像)의 힘,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

원스, 크래프트 하우스, 서울

2005 신진작가들의 발언, 비평가들의 제안, 스페이스 집, 서울

아시아 현대 미술 프로젝트 시티넷 아시아 2005,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나노 인 영 아티스트, 대안공간 루프, 서울; 갤러리 쌤지, 서울

파괴적인 성격 - 여섯 명의 예술가와 한 명의 침입자의 선언, 관훈갤러리, 서울

수상

2021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2014 제25회 김세중청년조각상, 재단법인 김세중기념사업회, 서울

2009 '2010 내일의 작가' 선정, 성곡미술관, 서울

2008 젊은예술가지원사업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2007 젊은예술가지원사업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레지던시

2017 두산레지던시 뉴욕, 뉴욕

2014 프로젝트 스페이스 인 베이징, 베이징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성곡미술관, 서울

메종 파티퀼리에르 아트 센터, 브뤼셀

캔 파운데이션, 서울

스페이스K, 서울